

동자와 교수님 이야기 동자와 졸업생분들의 솔직한 소감

근로장학의 모든 것 우리집 반려동물을 소개해요!

오늘 뭐 먹지?

요즘 대학생들 패션 트렌드

# 제7호 동행



7호 국장 김동민

이달의 학파생 Interview

발생공학 연구실 이야기



# 同行

同行

1. 같이 길을 감

2. 같이 길을 가는 사람





\* 제목을 누르시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목차

동자과 교수님 이야기	1~6
대학원 이야기- 발생공학 연구실	7~9
근로장학의 모든 것	10~18
내일 뭐 입지	19~26
오늘 뭐 먹지	27~30
동자과 졸업생 인터뷰	31~32
우리집 댕냥이	33~40
이달의 학부생	41~43
소감	

# 동자과 교수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동행  
7호

글 이수호  
지상혁  
최상헌  
김현겸

디자인 김민영

#동물면역학 및 실험  
#4학년 1학기  
#면역학 및 백신개발연구실  
#ivd.snu.ac.kr  
#국제백신연구소

## 윤철희 교수님





## 자기소개

1. 아직 면역학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교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 자기소개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면역학이 전공 필수가 아니었던 적이 있어서 졸업한 졸업생들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전에는 생리학이랑 해부학을 강의했었고 2016년부터 면역학이 전공 필수가 되면서 지금과 같이 강의를 하게 되었어. 현재는 학부생들에게 면역학이랑 미생물학 강의를 하고 있고 내 전공을 물어본다면 면역학, 백신학이라고 할 수 있지.

## 면역학은 왜

2. 경제 동물 면역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나는 석사 때는 (비반추)영양학을 공부 했고 그 후에 캐나다로 박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면역학을 시작했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건 영양 면역학이었는데 경제동물은 영양학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거든.

## 면역학과 후회

3. 면역학을 선택하고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면역학 자체를 후회한 적은 없는데, 면역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쉬웠던 게 있지. 내가 마우스와 사람(면역학)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연구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렇게 경제동물 강의/연구를 할 줄 알았다면 그 분야에 대해 좀 더 연구할 걸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 하지만 마우스/사람의 면역을 이해한다는 건 경제동물 면역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연구실 대학원 학생들도 마우스/사람 면역 시스템을 함께 공부하고 있어.

## 면역학이 대세?

4. 면역학을 연구하면서 생기는 장단점

가축을 다루는 면역학의 가장 큰 장점은 분야 특성 상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이지. 경제동물 면역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또 최근 질병/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이나 기업에서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연구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이해의 정도가 낮고 지원도 적은 단점이 있지.

## 젊은 시절로

5. 만약에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나는 안 돌아 갈래. 나는 지금 상황에 100% 만족하고 있어. 물론 과거에 특정 사건에 대하여 후회하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지. 그렇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룬 것들을 잃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지금 현재에 100% 만족하기로 (웃음).

## 스트레스

6. 평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이게 가장 나의 아킬레스 일 것 같은데. 내가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운동을 진짜 좋아하거든. 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 같은 라켓 운동은 빠짐없이 다 했어. 최근까지 배드민턴도 교수 동호회에서 했고. 그런데 지금 무릎 근육을 다쳐서 몇 달 째 못하고 있지. 스트레스는 바로 해소시켜야 하는데 내가 그걸 푸는 방법이 예전에는 술이랑 운동이었거든(웃음). 근데 내가 술 끊었지, 운동은 다쳐서 못하지 하니까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못 풀고 있어서 힘들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빠진다는 게임도 좀 해봤는데 별로 (더라고) ..

Q 어떤 계기로 술을 끊게 되셨나요?

술 담배를 동시에 끊었는데 2011년 11월 10일인가? 담배 하고 술은 끊는게 아니라 다음 피우고, 마시고 싶을 때까지 참는 거래(웃음).

Q 담배랑 술을 동시에 끊으셨네요?

담배랑 술이 조화가 좋아서 둘을 동시에 끊었지. 내가 캐나다 North Dakota 위쪽에 있는 사스카툰이라는 도시에서 끊었는데 거기가 정말 추워. 담배를 피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잘 못하면 담배가 (너무 추워서) 입술 위 아래 피부가 담배에 붙어서 떨어져 나가버려. 그거 한번 당하고 나서 담배 끊었어. 당시 내 생각에 담배를 끊는 방법은 ‘담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끊는 거다’ 생각이 들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주면서 끊었어. 물론 한국 들어와서 잠깐(?) 다시 피우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시 피울 때까지 끊는 거라는(웃음) ..

## 교수가 아니었다면

7. 만약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실 것 같나요?

난 처음부터 기업에 들어가서 일 하는 것이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날 데려가는 기업은 성공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 왜냐면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사람을 설득하는 건 잘 해 볼 자신이 있었거든. 그냥 형, 동생 하면서 쓰러지고 밤을 새면서 누구 붙들고 얘기도 하고. 지금의 기업문화는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난 그냥 토속적으로 한국 기업에 맞추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으로 가지 않았을까..

## 그래도 교수?

### 8. 기업형 인재라고 생각하셨는데도 대학원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기본지식이 좀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였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아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석사학위를 얻고자 비반추 영양학실을 들어갔고. 사실은 석사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진 않은데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서,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을 우선시하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서 라고나 할까? 이렇게 시작한 공부를 끊지 못한 거지.

### Q. 그럼 외국 박사과정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신 건지.

당시 지도 교수님이 한인규 교수님이셨는데 학장이셨고 난 실장이었고. 교수님이 일언지하에 “국내에서도 박사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외국을 가냐” 하셔서 박사를 국내에서 1학기를 했는데, 면역학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듣고픈 강좌들이 없습니다” 하고 유학 결정을 했어. 그 당시에는 면역학이나 내분비학을 공부하는 게 어떤 기업을 가는 데 유리하거나 그(런)건 아니었고 영양학을 하다 보니까, 영양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학문분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생겼지. 그렇다 해서 면역학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영양학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다른 게(무엇인지는 몰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나가(게 되)면 계속해서 영양학을 할 생각은 별로 없었고, 다른 걸 해봐야겠다고 강하게 생각을 굳히게 되었지.

그 당시에는 이-메일이 없으니까 직접 손으로 써서 하고 싶은 게 그거라고 미국, 캐나다 대학들에 보냈어. 그리고는 캐나다에서 제일 먼저 답이 왔고, 다행히도 (유학)나가 있는 동안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큰 고민 없이 선택을 했지.

### Q. 3학년만 되도 대학원이나 기업이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요즘 대학원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조언 해주실수 있나요?

본인이 대학원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대학원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왜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하는 거지. 정말로 이 분야를 끝까지 연구할 생각인지, 나처럼 대학원을 가지만 기업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건)지.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업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잘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 3학년 때 아직 전공 필수를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학원을 정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나는 인턴을 하겠다고 오는 학생들에게 두루 잘 살펴보라고 얘기를 해. 한 번 길을 정하고 나면 다시 바꾸기 힘들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몇 군데를 정해서 한 번씩 경험을 해 보고 여기 분위기가 나랑 맞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면 분야도 중요한데 분위기/정서도 중요하거든.

한 마디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를 10년, 20년 후에도 내가 이거 하면서 행복할까 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걸 3학년 때 알 수 없다는 게 아이러니 하긴 한데. 그래서 나는 이런 인터뷰를 진행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 학생들은 계속해서 오고 가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간접적으로나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 돼.

## 학부 인터제

### 9. 학부생들이 연구실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인턴 생활을 학위와 관계없이 한번씩 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가볍게 하고 갔으면 하(는 거)지. 이게 유니크 한 환경이거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경험을 해 본다는 건 새로운 것에 대한 작은 설렘 (같은거)? 그래서 연구실들이 좀 더 오픈되어 있고 누구든지 가서 작게 해볼 수 있는 분위기면 좋을 것 같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 Q 그럼 인턴은 들어가면 뭘 하나요?

잡일을 많이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 그래서 나는 최대한 그런 느낌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해. 번역학실 왔으면 번역학 연구라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은)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잡일을 하러 온 게 아니니까. 물론 인턴 학생도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연구실 시니어들이 힘들(어 하)지. 연구 할 때는 항상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도 관찰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 해 볼 수 있게 도와줘야 하니까. 그래도 본인들 인턴 생활 하던 시절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겠)지.

## 연구실 문화

### 10. 연구실만의 특이한 문화나 룰이 있다면?

우리는 월요일마다 위클리 리포트를 내. 월요일 아침에 와서 지난주에 한 일들이랑 이번 주에 할 일들을 위클리 리포트를 웹에 올려놔. 그러면 내가 점심시간 이후에 확인하고 바로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달아줘.

또 연말에는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본인이 연구활동 외 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서 피피티로 발표하는 거? 그게 뭐 특이한 문화라면 특이한 문화라고 할 수 있지. 퀄리티도 되게 좋아; 애니메이션이나 음악, 영상 효과도 넣어서 발표하기도 하고 연구실 학생들도 재밌어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매년 기다려지기도 해.

## 칭찬받을 때

### 11. 대학원생들이 대견해 보일 때가 있나요?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위를 하러 오기 전, 학위를 하는 중, 학위를 마치고 나서. 학위 오기 전 가장 대견했던 건 처음 연구실을 들어오기로 결정했을 때 자신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리한 노트를 들고 왔었던 것.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대학원생활을 할지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면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

과정 중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는게 대견한 건 당연하고.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최대한 잡일을 줄여주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일이 생겨. 학회 참석하려면 abstract 만들어야 되고 논문 실험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물도 보살펴야 되고 그러다가 교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있으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To-Do 리스트가 되게 많아(지게 돼).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늦지 않게 잘 해주면 고맙지. (다음 장에 계속)



과정 끝날 때는 이제 학위가 끝나고 자기 길을 잘 찾아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어떤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연락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연락이 오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서도 외부 사람들이나 기관에서 서울대학교 동물 면역학 연구실 출신이다, 라는 칭찬(성 발언)을 듣는 사람. 그렇게 자기 길 잘 찾아가는 사람이 기특하지.

## 최고 학생

12. 교수님이 지금까지 여러 해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학부생은 누구인가요?

과거에 내 지도 학생들이었는데 학교에서 거의 8년에서 10년 있었던 학생이 몇 명 있어. 근데 다들 분명하게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아있지. 이 학생들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가끔 만나기도 해.

## 어떤 교수?

13.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어떤 교수님이고 싶나요?

이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교수로 대학에 오기 전까지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대학 오고 나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선 내가 다닐 때는 어떤 교수님들이 계셨나 생각해 봤어. 모두들 장단점이 있으셨다고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 학생들의 기억은 서울대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꼭 차 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을 가슴 깊이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남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다면 .. 근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는 내 생각이고 학생들은 여러분의 시각으로 해석하여 (교수님들의) 좋은 점은 본인 것으로 만들고 단점이라면 잘 고민하여 배제하는 그런 사람이(되)었으면 좋겠어.

## 이것만은

14. 마지막으로 학부생들과 동행을 보게 될 동문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학교를 다닐 때는 같이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우리의 의미가 동문으로 확장되잖아. 동문들이 후배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 정말 고마움, 따뜻함이 느껴지거든. 이번에도 이보균 회장께서 과감하게 1억 기부하면서 학생들 위해 쓰라고 하시고. 사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08학번 졸업생들도 금일봉을 모아서 전달 했잖아. 그런 것들을 보면 감사하더라고. 이런 건 동문이니까 가능한 것이거든.

그래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기 길은 다 알아서 잘 찾아가니까, 동문들이 있음에 그리고 도와주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졸업 후에는 내 후배들을 위해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에서 동문들께 다시 한번 그런 도움과 나눔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대학원 이야기-발생공학 연구실



### Q.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생공학 연구실에서 석박사통합과정을 마치고 이번 2018년도 2학기 박사졸업예정인 양우섭이라고 합니다.

### Q. 대학원을 다녀야 취업이나 승진에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데, 2년 동안 드는 비용과 시간, 노력을 비교해봤을 때 가치 있는 시간인가요?

석사라고 가정하였을 때, 2년의 대학원 과정 동안 경제적인 수입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만 마치고 회사에 취직할 경우, 대학원에 비해 심도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에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부서의 배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회사에 진행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주도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의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간다면, 경력을 인정해주는 회사도 많을뿐더러 자기학업 분야의 지적 성숙으로 인한 본인 업무에 대한

## 대학원 이야기-발생공학 연구실

자신감도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Q. 발생공학 연구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연구실은 줄기세포, 생식세포, 암세포 등 다양한 세포를 이용한 연구 진행 및 더 나아가 생체 내 유사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배양 시스템 확립에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를 진행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하였습니다.

**Q. 석사 과정 때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저는 여성의 생식질병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간자궁내막조직과 자궁내막질환 마우스모델을 이용하여, 자궁내막암, 자궁선근증을 포함하는 자궁내막질환 발병의 분자학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Q. 박사학위까지 받는 것은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직업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가 꿈이신 분들에게는 박사학위

필수이기도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취업을 원하신 분들에게 취업비자문제도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학자이기 때문에 새롭게 기획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관리, 수행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장생활에서의 성공률이 높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Q. 발생공학 연구실에서 다루는 연구 주제 중에 '배양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In vitro에서 생체 내 환경과 유사하게 구현하는 연구는 다른 연구실에서도 많이 다루는 주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organoid를 활용한 실험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생체 유사 환경을 구현하는 미세시스템을 이용한 생명공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종양, 섬유화 등의 질병연구, drug screening, 맞춤형 의학을 위한 연구로서 일부 기술들은 상용화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대학원 이야기-발생공학 연구실

다. 아직 저희 연구실에서는 organoid 연구는 진행하고 있지 않고, 현재 다양한 소재(생명유래소재, 나노소재)를 활용한 배양 시스템 개발 및 생체 유사 환경 구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Q.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대학원 진학을 하실 건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시 돌아가도 대학원을 진학할 것 같습니다. 대학 학부생활에서 배울 수 없었던 전문지식과 연구 스킬을 배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좀 더 넓은 과학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인생의 멘토인 지도교수님, 결과 중시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주도 할 수 있는 학업 과정 등 대학원과정의 경험은 회사에서 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Q. 대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사회에 나갈 준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은 자기 주도적이고 혼자 힘으로 세상을 나아가야 하

는 발판이 되는 곳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성장가능성은 높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 동안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Q.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패 할 준비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과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실패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인생은 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계속 고민하고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 학교 안에서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부생이 있다?

<근로장학의 모든 것>



팀장 지상혁  
팀원 이수호  
디자인 홍희상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근로장학**입니다. 근로장학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학교 내부 혹은 가까운 외부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입니다. 여기에서는 근로장학, 근로장학을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현재 다른 유형의 근로장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 챕터를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장학은 2가지, 학교 안에서 신청하여 근로장학을 진행할 수 있는 **교내 근로장학** 제도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여 근로장학을 신청할 수 있는 **국가 교육 근로장학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밑의 표는 교내 근로장학 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근로장학금	
근로장학금 대상자	가계가 빈곤한 자 등으로 근로를 원하는 학생이나 교수가 추천하는 자 1) 근로 유형 1 및 유형 2 학사과정 재학생을 원칙으로 함. 단, 업무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생 가능 2) 근로 유형 3 대학원 재학생(연구생 포함)을 원칙으로 함. 단, 학사과정 학생을 예외로 대처가능 3) 근로 유형 4 및 유형 5(국가근로) 학사과정 재학생이 원칙이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결과 소득분위 및 성적심사 통과자만 가능
장학금 근로내용	- 전공지식을 현장에서 실습 또는 응용함으로써 학문의 실용성 경험 - 교과목 이수율 통하여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 이해 - 단순노력을 통하여 근로의 신성함을 체득함으로써 자기성장에 기여 - 근로내용, 장소, 시간 배분, 전공연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근로기관장이 정함
신청절차 및 선정방법	- 대부분은 교내근로장학 및 국가근로장학 예산규모에 따라 매 학기별 근로장학인원을 선정하여 근로관리기관별 장학인원 배정 - 각 근로관리기관은 학생으로부터 <근로장학신청 및 추천서>를 접수하여 장학생 선정 - 장학생 선정 절차 및 방법은 각 근로관리기관 자체 규정에 의함. 단, 국가근로(유형 4 및 유형 5)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하는 기간에 국가근로장학을 신청하여 소득 및 성적심사 통과한 자에 한하여 선발 가능
장학금 근로기간	- 1학기 : 3월 ~ 8월(6개월) - 2학기 : 9월 ~ 익년도 2월(6개월)
장학금 근로시간	- 유형 1 : 주 10시간, 월 40시간 - 유형 2 : 주 15시간, 월 60시간 - 유형 3 : 주 20시간, 월 80시간 - 유형 4 : 주 15시간, 월 60시간 - 유형 5 : 주 15시간, 월 60시간
장학금 지원내용	- 월정 장학금을 시간 계산하여 지급(실제 근로시간 x 시급단가) - 유형별 월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타 장학금과의 이중 수혜 가능하나, 근로 장학금간의 이중수혜는 불가 - 선발 후 휴학, 제적 등 학적 변동자는 장학금 지급 중단
장학금 재원	- 유형 1, 유형 2, 유형 3 : 교내장학예산 100% - 유형 4 : 국가근로장학사업비 80%, 교내장학예산 20% - 유형 5 : 국가근로장학사업비 100%
장학금 지급방법	- 익월 10일경 학생 본인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밑의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국가 교육 근로장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 <국가 교육 근로장학>

**지원자격:** 국내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 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의 경우 우선 선발

**소득 구간(분위) 적용 배제:**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형, 봉사유형,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활동의 근로 시에는 소득 구간(분위)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

선발기준의 경우 학적 및 성적, 소득요건을 만족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 자체기준을 수립하고, 대학생을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한다.

### 우선선발기준

1순위: 소득 4구간(분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소득 5구간(분위) 이상 ~ 6구간(분위) 이하

3순위: 소득 7구간(분위) 이상 ~ 8구간(분위) 이하

시급 단가는 2018년 기준 교내 근로 8,000원이었고 2019년 1,2월의 경우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하여 8,350이며 변동될 수 있다고 한다.

교외 근로의 경우 2018년 3-8월은 9,500원, 9월-19년 2월까지 10,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최대 근로 시간:** 1일 8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450시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내 근로장학의 경우, mysnu(<http://www.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교내 근로장학의 경우, 신청 기간이 생각보다 짧으니 자주 확인을 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근로장학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시기에 동시에 근로장학을 신청하면 된다.

## <인터뷰>


마지막으로 18년도 2학기때 각자 다른 유형의 근로장학을 진행한 두 명의 학생의 인터뷰를 통해 근로장학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D :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생명공학전공 17학번 김동민이고 현재 근로장학 5유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S :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생명공학전공 17학번 김세윤이고 현재 근로장학 1유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어디서 근로장학을 하고 있는지, 근로장학에서 하는 일을 무엇인지 얘기해주세요.**

D : 근로장학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유형 5**입니다. 근로장학 유형 5는 학교 내부에 있는 것 같지만, 교외로 쳐주는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기술지주회사라는 곳과 유전공학실험실 그리고 어린이집 이렇게 3곳이 있는데 유형 5는 이 3곳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기술지주회사에 입소해 있는 한 회사, 메디사피엔스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사무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S : 저는 **유형 1**이고 그 중에서 동물생명공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과사무실에서 동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대체적으로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의 우편물을 각 과사무실에 있는 우편물 수발함에 넣는 역할, 문서 파쇄하는 역할 그리고 다른 부서로 문서 전달 등의 기타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에서 외부로 우편물 발송, 과행사 보조, 과방 청소 등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Q. 근로장학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D : 원래 1학기에 알바를 하려고 공강을 만들어놓았어요. 그래서 알바 알아보는 동시에 근로장학도 신청을 했었어요. 근로장학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는 근로장학이 있고 교내에서 하는 근로장학은 마이스누에서 따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 2개를 동시에 신청을 했었는데 한국장학재단, 현재 일하던 곳에서 연락이 먼저 와서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다른 곳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여기서 한다고 해서 아마 다른 곳의 후보군에서 제외되었을거예요.

유형 5을 1학기때 해봤는데 교외가 교내 근로장학에 비해 시급이 높아요. 교외의 경우 저번에는 시급 9500원, 이번에는 10500원으로 다른 교내 근로장학보다 높아요. 그리고 기업분들이랑 말만 잘 되면 근무하는 시간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회사라는 곳에서 일하니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등 여러가지들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제가 들어간 기업이 신생기업이다 보니깐 사장님이랑 직원분들께서 서로서로 회사를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된다 등등 서로서로 얘기하고, 저한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거기가 바이오 관련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딥러닝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의 생명과학 박사 분들에게 여러가지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서 이번학기까지 쪽 하게 되었어요.

또한, 교내 근로장학과는 달리 최소로 채워야 할 시간은 없고 최대 60시간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 근로장학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암암리에 40시간이 안 넘으면 다음에 뽑을 때 제외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S : 이번학기까지 포함하면 2학기를 했어요. 신청한 이유는 알바를 하면 학교 바깥까지 나가서 일하고 다시 학교로 이동하는 시간이 교내 근로장학을 한다면 학교에서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시간 활용이 좀 더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청했습니다.

1학기때는 학교 교무행정실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친해져서 학교의 이런저런 시스템을 알고 또 학교의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근무 위치의 경우 교내장학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면 학교 측에서 임의로 정해주고 마이스누에서 신청하면 큰 부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Q. 근로장학하는 이유에서 장점은 다 말씀해주셨고 그러면 근로장학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D : 제가 근무하던 곳이 기숙사 뒤쪽이라서 기숙사의 경우에는 편하겠지만 자취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출근하는데 교통편이 아주 애매해서 출퇴근이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한 번 가서 많은 시간을 할 수 있지 않으면 학교에서보다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일하는 곳의 기준에서 그곳은 회사라서 프로젝트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제가 그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일손이 부족해서 안 끝날 것 같더라고 말하면 왠지 제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가야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S : 교내 근로장학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6시전에 무조건 끝내야 해요.

또, 40시간이나 60시간을 무조건 채워야 하고 만약 다 못 채운다면 다음 번 근로장학 선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시간표에 근로장학 시간을 배정하지 못하면 신청하기가 꺼려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 Q. 혹시 근로장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S : 근로장학 1차 합격 후 2차로 부학장실에서 면담을 하고 2차에서도 몇 명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부학장님과의 면담시간에서 질문 받았던 것이 컴퓨터를 잘 다루냐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하시는 걸 보니까 업무들 중에 컴퓨터 다루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컴퓨터 관련 일에 대하여 어느정도 노하우나 능력이 있다면 근로장학 선발에 어느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D : 근로장학을 신청했을 때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약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면 자신의 여건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만약 학교에 상주를 하고 공강이 길지 않다면 관성이나 농대에서 일하는 등의 학교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자신의 공강 시간이 길어 한 번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면 교외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들은 것이지만 유전공학연구소쪽으로 가면 생명공학 관련 연구도 옆에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위치를 변경하고 싶으면 뽐히고 전화를 드리면 바꿔주시기는 해요. 자기가 근로하는 장소를 여러 장소로 바꿔가면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내일 뭐입지

prologue | **blog**

map | library | memo | guest



category

전체보기 (1) **icon**

특 추천 (1)

## 동행 7호

글쓰기 | 관리·통계

전체보기 1개의 글

목록열기

특 추천

글. 전민경, 허수민, 이하림  
디자인. 전태규



20분 전 비공개

URL 복사

통계



코너 소개 : “내일 뭐 입지?”는 내일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 지 고민하는 학우들을 위해 대학생활의 각 상황 별로 패션 룩을 추천해주는 코너입니다. 상황을 개강여신룩, 개강남신룩, 시험기간룩, 실험룩, 엠티룩, 소개팅룩, 겨울계절룩, 일흡룩으로 나누어 구성해보았습니다. 특히 매일 교복만 입던 새내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동자과 재학생들이 지난 대학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했으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입어야 한다!’가 아니라 추천의 의미라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강여신룩



1. 개강하면 봄과 가을!! 봄과 가을에 어울리는 갈색 체크무늬 블라우스로 계절과 하나가 되어보자~

2. 눈에 확 띄는 벨벳 플레어 스커트로 개강한 후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보자!!



3. 망토코트를 이용해서 봄, 가을의 쌀쌀한 날씨도 이겨내고 캐주얼한 느낌까지 일석이조!

4. 굽 있는 구두까지 신어주면 키도 커지면서 개강여신룩 완성!!



5. 개강한 주는 오티하는 주!! 그 말은 무거운 전공책이 필요없죠ㅎㅎ 이럴때 캐주얼한 핸드백으로 들고다녀보자!!

6. 팔찌까지 채우면서 팔목의 허전함도 채워보자!!



## Editor's say

"개강해서 몸도 마음도 피곤할 시기에 예쁜 옷을 입고 학교에 가면 기분전환도 되고 혹시 좋은 일이 생길지도...!!!"



# 개강남신룩



1. 심플하고 단정한 스트라이프 셔츠로 깔끔한 남신 매력 방출~

2. 셔츠와 조화로운 조끼를 pick 해서 교복 저리가라 수준의 훈 대딩 포스 작렬~



3. 캠퍼스 주인공은 나야나 ★ 를 외치고픈 가디건 계절 분위기에 맞추는게 뽀인트

4. 지나가다 베일 듯한 칼주름과 다리가 길어보이는 게 필수. (앗,, 저 슬랙스에 베였는데 번호좀...)



## Editor's say

"물론 준비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을 거울을 보면 ...그럼 이만 ㄹ ㄹ!! 캠퍼스 개강 남신, 당신도 할 수 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 시험기간룩



1. 캐주얼하기도 하지만 정말 편한 후드티!!

## 2. 신축성 갑인 체육복 바지까지!!



3. 딱 진 머리를 가려줄 모자와 미세먼지도 막아주고 자신감도 UP 시켜주는 1석2조의 마스크!



## 4. 전공책에도 끄덕 없는 튼튼하고 널널한 가방!!



5. 답답함은 NO! 편한 슬리퍼로 집중력을 더 높여보자

## Editor's say

“시험기간에는 뭉니뭉니해도 편안함이 최고!!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후드티와 체육복 바지를 매칭해 보았습니다. 혹시 모를 밤샘에도 끄떡 없습니다. 시험기간이 분들 모두 파이팅!!”

## 실험록



1. 실험 수업의 필수 준비물인 실험복 가운!!

2. 다리를 보호해줄 긴 바지와 발을 보호해줄 운동화!!





3. 위험한 실험 시 필요한 실험용 보안경과 실험실에 구비되어 있는 라텍스 장갑!!

### Editor's say

"이공계열 학생이라면 피할 수 없는 실험 수업을 위한 룩! 학기초에 실험복을 공동 구매해두면 실험 수업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업은 실험복을 입지 않거나 치마나 구두를 착용하면 감점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 엠티룩



1. 엠티의 필수템! 과잠과 그 안에 입을 간단한 맨투맨!!

2. 잠옷 바지가 될만한 편한 바지와 더러워져도 되는 이미 더러운 양말, 새 양말은 비추!



3. [희귀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LED 치아

### Editor's say

"엠티에 다같이 과잠을 입고가서 단체샷을 찍어 추억을 만든다면 최고!! 엠티에 서는 보통 입고 간 옷이 곧 잠옷이 된다는 사실~! 또한 고기도 구우며 숙소를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신발이 밟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새 신발은 피하는 게 좋겠죠?"



# 소개팅룩 (남)



1. 소개팅 때는 매일 입던 롱패딩은 잠시 고이 접어두고 코트를 꺼내 보는게 성공의 지름길!!

2. 깔끔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켓!! 하얀색 자켓을 입어주면서 깔끔함 업!!



3. 자켓 위에 맨투맨을 입으면서 밋밋함도 없애주고 캐주얼함까지 얻어보자!!

4. 슬랙스와 깔끔한 단색 단화를 이용해 편안함과 깔끔함을 더해주자!!



## Editor's say

"이렇게 차려입고 소개팅에 나가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소개팅에서 가장 중요한건 태도인거 아시죠!?"

# 소개팅룩 (여)



1. 사계절에 다 어울리는 코트 (튀지않는 색 추천)

2. 깔끔해 보이는 폴라티와 원피스의 조합으로 깔끔함과 귀여움을 더해주자!





3. 높지 않은 구두를 신어보는 것도 좋은 선택!!

### Editor's say

"차분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옷을 골라보았습니다! 일부러 톤을 맞춰봤습니다. 경험상 굳이 원피스나 치마가 아니라 바지를 입어도 괜찮지만 깔끔한 이미지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모두 즐거운 소개팅 보내세요~"

## 겨울계절록



1. 관악산의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돕바!

2. 편안하고 따뜻한 후드티와 잠옷과 통상복 모두 활용 가능한 체육복! 아침 늦잠을 대비한 시간절약!



3. 하나만 입어도 온몸에서 열이 나는 유\*클로 히트텍!!

4. 체감온도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한 목도리와 귀가 잘릴 듯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감쪽한 귀도리!!



### Editor's say

"관악산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끼임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추위보다 강한건 아침잠과 게으름이예요. 겨울계절 6학기 경험자로서 이렇게 입고 나가는건 기적에 가까워요! 특히 9시 수업이 있다면요! 최소한의 사람 모습으로만 등교해도 성공한 겨울계절~!"

# 소개팅룩 (남)



1. 라이더 느낌이 나는 가죽 자켓을 입음으로써 일품에서 기선을 제압!

2. 안까지 검은 셔츠를 입는 흑간지. 감당 하실 수 있으니까?



3. 가죽자켓에는 당연 가죽바지. +와이드한 핏으로 자유로운 영혼 완성

4. 당당한 매력을 업시켜줄 다크하고 높은 신발은 필수!!



5. 반지, 팔찌 등 각종 장신구로 간지 대폭 상승 일품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 Editor's say

"스카이 캐슬 김주영 선생님도 울고 갈 흑간지 모습의 당신이라면 일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신나게 놀고 오자!"

#컷팅 태그수정

댓글쓰기 | ▾

★ 🟩 📄 수정 삭제 설정 ▾



# 오늘 뭐 먹지??

## 1. 파란 코끼리



### 큐브 스테이크 덮밥



스테이크 덮밥은 역시 어디서 먹든 맛있었다. 고기도 부드러웠고 고기와 밥을 함께 먹을 수 있어서 배도 든든했다. 고기와 밥만 계속 먹으면 약간 느끼해서 질릴 수도 있는 부분을 와사비가 잡아줘서 더 좋았다.



큐브 스테이크 덮밥보다는 숙주 덮밥이 더 어울리는 메뉴명 같다. 숙주랑 밥의 맛이나 식감도 괜찮았고 고기도 부드러웠지만, 생각보다 간이 싱거웠고 무엇보다 고기의 양이 적어서 나중에는 숙주와 밥만 먹게 된다.



소고기와 숙주가 어우러진 덮밥이었다. 점원분께서 돼지고기 덮밥도 있지만 부드러운 맛을 선호한다면 소고기 덮밥이 나을 거라고 해주셨다. 고기는 간이 되어 있었고, 볶은 것 같았다. 푸드트럭에서 파는 맛이랑 비슷했다. 그리고 숙주가 매우 많아서 밥만 먹어도 숙주 향이 배어있었다. 그래서 숙주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먹기 힘들 것 같다.



연어를 좋아해서 제일 기대하고 처음으로 맛을 봤지만 생각보다 맛이 별로였다. 해산물류의 덮밥을 먹을 때는 밥의 온도가 높지 않아야 하는데 이 연어 덮밥은 밥이 따뜻했다. 그래서 연어의 식감이랑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연어도 식감이 괜찮았고 와사비나 새싹채소가 같이 있던 조합도 좋았다. 하지만 큐브 스테이크 덮밥과 마찬가지로 연어의 양이 적어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음식이다. 차라리 밥에 간을 추가하거나 양념을 제공해서 후에 싱거운 밥만 먹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연어를 좋아하고 일식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연어 덮밥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먹는 편이다. 그렇지만 파란코끼리의 연어 덮밥은 일식전문점이 아닌 곳 치고는 괜찮았다. 물론 연어가 두 겹고 질이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비린 맛은 나지 않았다. 연어 양이 적은 편이 아니었지만 다 먹고 나니 밥만 남긴 했다. 밥에 후리카케가 뿌려져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다.



### 연어덮밥



### 유부우동



다른 메뉴들만 먹으면 느끼할 수 있지만, 이 유부우동이 그 느끼함을 잡아준 것 같다. 유부우동의 국물은 깨끗하면서도 시원했고, 우동 사리는 탱탱했다. 다른 음식을 시킬 때 같이 주문하면 끝을 더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음식이었다.



우동사리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나 유부도 많이 들어있어서 괜찮았다. 그리고 국물이 시원하고 간도 딱 맞아서 중간중간 입가심으로 먹기에 적당했다.



어느 곳이든 우동은 무난한 맛을 보장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우동 맛이 좋았다. 맛있는 국물을 먹고 싶을 때 추천하고 싶은 메뉴이다. 유부도 꽤 많이 들어있고 면도 좋았다.



**마리김밥**



**누들 떡볶이 + 치즈**

**I. 스팸 마요**

-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의 김밥이다. 4가지 메뉴의 김밥 중 가장 맛있었고, 김밥을 한 종류만 시키게 된다면 이 맛을 추천한다.
- 말 그대로 스팸이 들어있는 김밥이다. 스팸이랑 계란, 깻잎이 재료로 들어있어 상상되는 딱 그 맛이다. 하지만 마요네즈의 맛이 잘 나지 않았다.

**II. 크림미 와사비**

- 와사비가 들어간 김밥은 정말 신선한 조합이었다. 생각보다 맛은 괜찮았고 메뉴 이름 그대로 신선하고 신기한 맛이였다. 한 줄 정도는 먹어볼 만하다.
- 와사비가 들어간 유일한 김밥이지만 개인적으로 와사비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크림미 맛만 났다.

**III. 매콤 오뎅**

- 이 김밥을 입에 딱 넣자마자 든 생각은 '진짜 맵다'였다.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취향 저격인 김밥이지만,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 딱 집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오뎅맛이다. 하지만 오뎅의 매운 맛이 너무 강해서 다른 재료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IV. 참치 마요**

- 맛은 참치마요 삼각김밥과 비슷했다. 삼각김밥 중 참치마요맛을 즐겨한다면 이 메뉴를 추천한다. 김밥 속 깻잎의 맛이 합쳐져서 더 깔끔한 맛이 났다.
- 4가지 메뉴 중 가장 괜찮았던 김밥이다. 하지만 역시 참치의 양이 부족한 느낌이었어서 다시 시키고 싶지는 않다.



파란 떡볶이가 덮밥 전문점이라 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은 메뉴였지만 주문한 음식 중 가장 맛있었다. 적당한 맵기의 소스와 쫄득한 떡과 치즈는 기대 이상의 맛이였다. 덮밥 전문점이라고 해서 덮밥만 시키지 말고 떡볶이를 시켜서 먹기를 추천한다.



덮밥보다 떡볶이가 훨씬 맛있었다. 누들떡볶이라는 이름답게 떡이 얇고 길었고 쫄득하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 위에 눈꽃치즈까지 뿌려져 있어서 계속 손이 갔다. 매운 걸 못 먹는 편이지만 이 떡볶이는 전혀 맵지 않았다.



떡이 면처럼 얇고 길어서 특이했다. 특이한 비주얼뿐만 아니라 맛도 있었다. 국물이 꽤 있어 국물 떡볶이와 비슷했고 국물만 따로 먹어도 맛있었다. 맵기는 하나도 맵지 않았고 적당했다. 메추리알도 2개 들어있었다. 눈꽃치즈를 추가했는데 치즈양이 꽤 많아서 끝까지 치즈와 같이 먹을 수 있었다.



## 2. 더랩 컵밥 (The Lab)

Menu : 스팸김치, 스팸마요, 꼬기꼬기, 데리야끼스팸, 간장계란, 참치김치



스팸마요



스팸김치 + 계란후라이



가장 자주 먹는 맛은 단연 스팸김치맛이다. 여기에는 익히지 않은 스팸, 볶음 김치, 김, 밥, 약간의 채소가 들어있는데 계란후라이까지 추가하면 맛이 아주 조화롭다. 그리고 다른 맛과 달리 김치가 있어서 끝까지 느끼하지 않게 먹을 수 있다. 또한, 스팸의 자극적인 맛이 고평 때 선택하기 좋다. 혹은 컵밥은 처음 먹는 새내기에게 추천하고 싶은 메뉴이기도 하다. 일단 컵밥의 기본은 계란 후라이를 추가하는 것이고, 컵밥만 먹으면 한 끼로 약간 부족할 수 있다. 더랩에서 주스와 함께 먹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컵밥을 시킬 때 계란을 추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인데, 이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 간장계란밥을 시키고 계란후라이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러면 계란후라이를 두 개 먹을 수 있다. 참고로 계란 후라이는 500원을 추가하면 시킬 수 있다.



느끼한 맛을 좋아해서 스팸마요를 자주 시켜 먹는다. 말 그대로 큐브 모양의 스팸과 마요네즈, 약간의 데리야끼소스가 들어있는 컵밥이다. 처음에 섞을 때 부추는 괜찮지만, 스팸이 튀어나오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뚜껑을 받치고 섞는 것이 좋다. 맛은 맛있는 편이지만 개인적으로 양이 적다. 이럴 때는 커피나 주스와 같이 먹거나 컵밥을 하나 더 먹으면 된다. 스팸마요와 잘 어울리는 컵밥으로 꼬기꼬기를 추천한다. 컵밥은 본격적으로 식사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애매하게 배가 고평 때 먹기 딱 좋다. 그리고 주스는 자몽주스로 추천한다.



컵밥에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지만 내가 먹어본 컵밥 중에 스팸김치 컵밥이 가장 조합이 좋은 것 같다. 볶음 김치만의 깊은 맛과 어떤 것과 섞어도 최강인 스팸의 조합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김치와 스팸을 밥과 잘 섞어서 먹으면 언제 다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푹푹 사라진다. 만약 어떤 메뉴를 먹을지 고민 중이라면 스팸김치 컵밥을 추천한다.



### 3. 휴(休) 김밥



- I. 관정관 뒤에 위치하여 접근성도 좋았고 밖에서 메뉴판을 볼 수 있어 어떤 메뉴가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다.
- II. 들어가서 자동 주문기로 먹고 싶은 메뉴를 주문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는 라볶이를 주문했다. 단무지나 김치, 국물은 셀프고, 담는 그릇은 음식이 나오는 곳 바로 아래에 있다.
- III.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일 수 있지만, 음식이 나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음식도 맛있었던 편이다. 입맛에 잘 맞았고, 라볶이는 학식에는 나오지 않는 메뉴라 라볶이가 먹고 싶은 날에는 와서 먹으면 좋다는 생각을 했다. 라볶이 말고도 메뉴가 많았고 '에브리타임'을 통해 다른 메뉴들도 맛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식당 내에는 혼밥(혼자 밥먹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테이블도 많아서 혼밥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았다.



Edited by 허수민, 전민경, 전태규  
Designed by 최연희

# 동자과 졸업생 인터뷰



**15학번 김나영**

Q. 곧 졸업하시게 될 텐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졸업 논문이 통과 되어야 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논문 발표가 끝나서 너무 후련합니다!

Q. 후배들에게 짧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들어오는 후배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학원으로 많이 진학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Q.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졸업 통과가 각오입니다ㅎ!! 논문도 통과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Q. 곧 졸업하시게 될 텐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가장 먼저, 졸업한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Q. 후배들에게 짧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논문 컨택은 일찍! 교수님 컨택을 1년 전에(인기 있는 연구실은 2년전), 아니면 관심 생기면 바로! 컨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졸업 후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15학번 현용규**



## 13학번 황의득

Q. 곧 졸업하시게 될 텐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아직 실감이 잘 나지는 않지만, 감회가 새롭습니다! 졸업을 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들었었는데, 다행이도 이렇게 하게 되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Q. 후배들에게 짧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졸업 논문 발표에 관련해서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실험 계획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잘못 세우면 실험을 몇 달씩 하더라도 다시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에, 졸업 논문 준비에 있어서 처음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학교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아직까지는 졸업 후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지 금까지 졸업을 위해 너무 달려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Q. 곧 졸업하시게 될 텐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일단 뿌듯해요! 왜냐하면 4년간 고생도 많이 했고 결과도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졸업을 한다는 것이 뿌듯한 것 같아요!

Q. 후배들에게 짧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졸업 논문 쓸 때, 실험실을 최대한 잘 선택해서 너무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Q.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 전공을 살릴 것 같지만 않지만, 전공 졸업생으로서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사회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 15학번 이은지



# 우리 집 댕냥이

**팀장** 김태주  
**팀원** 최연희  
**디자인** 홍희상

2018년 가장 핫했던 동물을 꼽아보자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학우들께서 짱절미를 꼽으실 것 같습니다. 동행 7호에서는 짱절미만큼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소개하는 코너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동물생명공학 학우들은 어떤 동물들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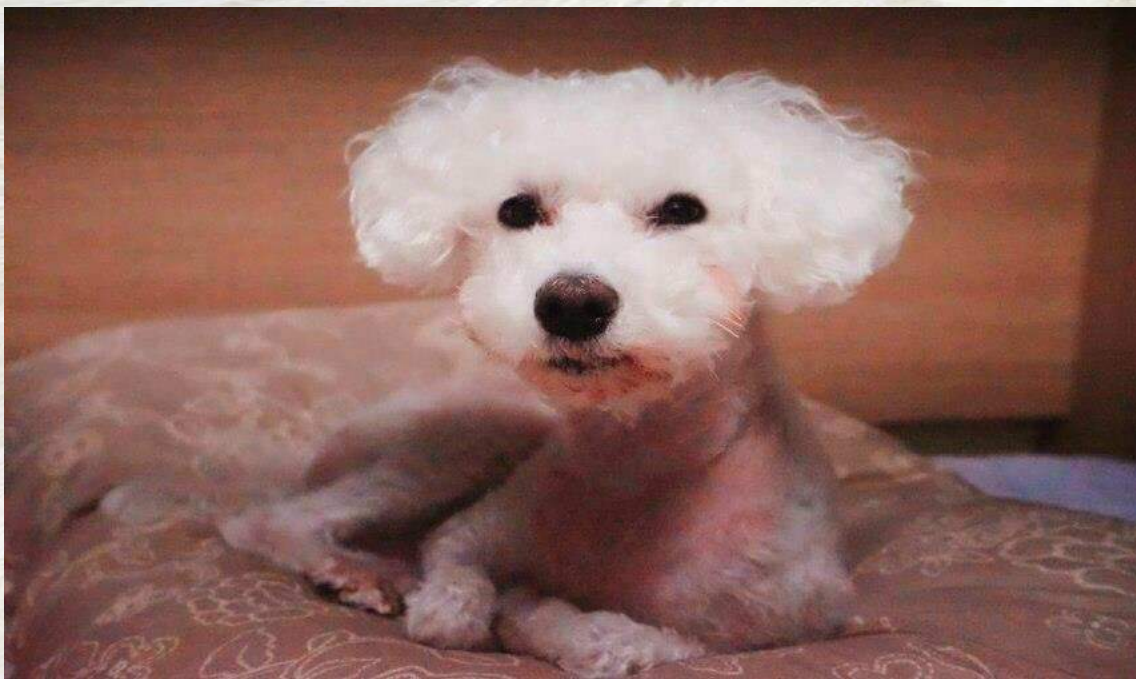


첫 번째로 소개드릴 강아지는 바로 '똥이'입니다.

똥이는 18학번 **윤재현** 친구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똥이의 매력을 소개해달라는 말에 윤재현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똥이는 재현 친구 삼촌 믹스견 암컷과 똥돌이 수컷 믹스견이 교배하여 낳은 강아지지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마치 혈통 있는 강아지처럼 멋지고 귀여운 자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척 영리하여 '오른쪽/왼쪽 손, 앉아, 옆드려' 등등 여러 개의 개인기를 능숙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변훈련 이후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똥이의 특징은 산책과 운동을 무척 좋아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간식을 먹는 것보다 산책하는 것을 더 좋아해서 매일 아침 7시에 어머니와 함께 운동을 하러 나가는 부지런하고 활동적인 강아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반려동물은 17학번 **최민우** 학우의 강아지 '몽치'입니다.



몽치는 2013년에 태어나 올해 7살이 되었습니다. 몽치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낮잠을 자는 귀여운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치의 매력은 긴 다리라고 소개해주었습니다. 몽치는 정말 특이하게도 초인종 소리에 반응하여 하늘을 보고 늑대처럼 짖는 특기가 있다고 합니다. 복슬복슬 귀여운 흰 털에 까만 눈코입이 돋보이는 인형 같은 미모를 가졌네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친구는 17학년 **조건우** 학우가 기르고 있는 앵무새 친구들입니다

그린퀘이커 종인 초록색 빛을 띠고 있는 친구의 이름은 '**단미**' 이고 블루퀘이커종인 파랑색을 띤 친구의 이름은 '**영심이**' 이라고 합니다. 앵무새 친구들은 아직 야생성이 남아있어 둥지를 만들기도 하고 둥지에 접근하면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안방 화장실에 둥지를 만들어 두어 가족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네요. 단미와 영심이는 특이하게도 신체 중 손을 경계해서 손을 올리면 물려고 달려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우 학우가 뽑은 단미와 영심이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정말 귀엽고 잘 날아다니며 인사를 잘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친구는 가장 특이한 친구입니다~  
바로 17학번 **김가현** 학우가 기르고 있는 '블텅이'입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비늘에 빛나는 두 눈을 가진 블텅이는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텅이는 얼굴만 보면 뱀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몸통은 도마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고 귀여운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몸에 비해서는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블텅이는 배가 고프면 문을 긁는 특이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가끔씩 시선이 느껴져 보면 말없이 쳐다보고 있는 차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랍니다! 블텅이의 신기한 특징은 혀가 파란색이라는 점과 새끼손가락만한 똥을 싣는다는 점입니다. 블텅이가 무엇을 먹을까 궁금해 하는 학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새끼일 때는 살아있는 곤충(ex: 밀웜, 귀뚜라미)과 과일, 야채를 먹는 잡식성 이다 성체가 되면 채식만 한다고 합니다. 블텅이는 그 중 바나나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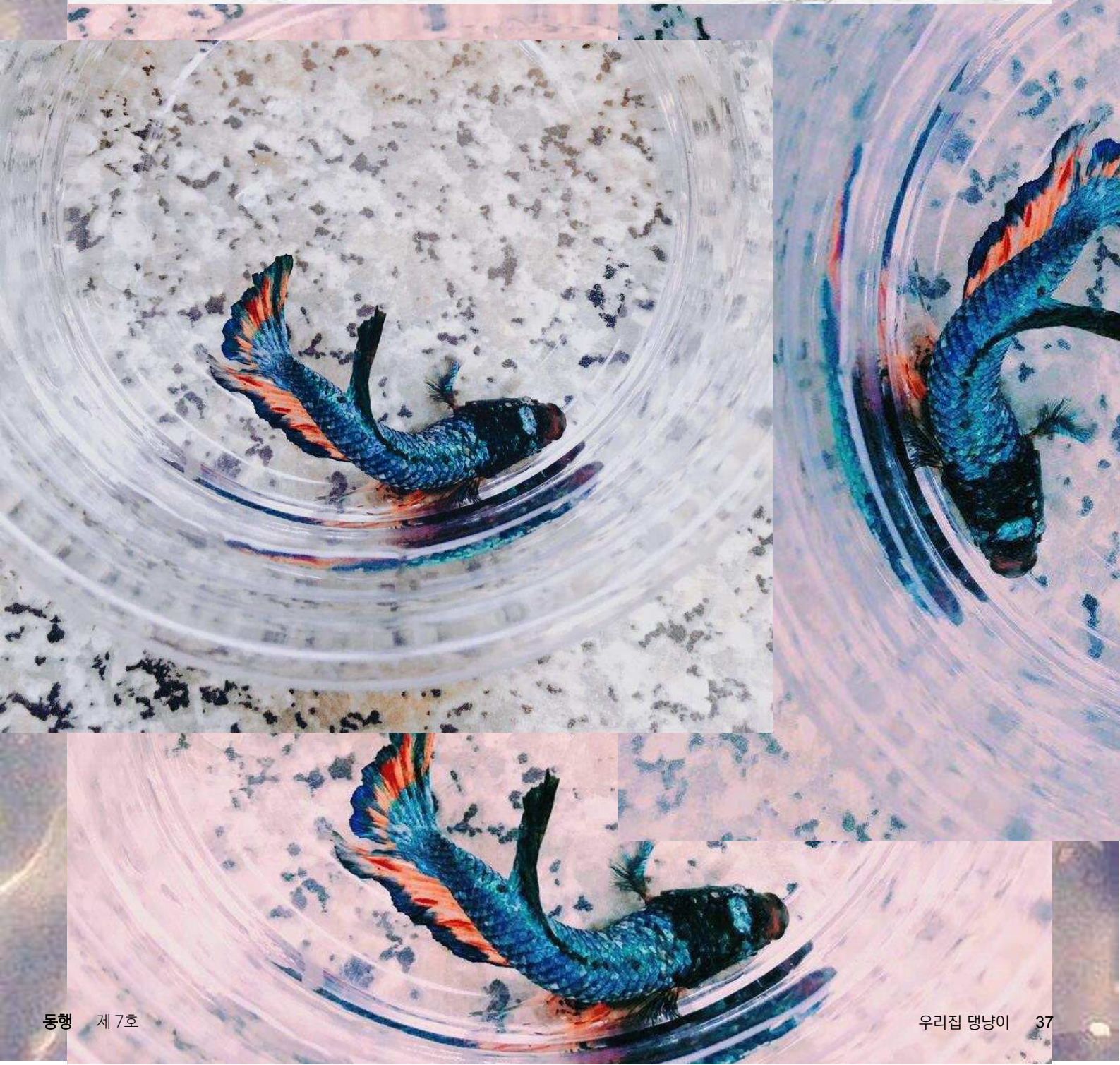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친구는 바로 17학번 **홍희상** 학우의 '**파랑이**'입니다.

에메랄드빛의 반짝이는 비늘과 오묘한 색깔의 꼬리가 시선을 이끄네요!

사진 속 파랑이는 두 살 정도 된 베타 암컷 종이었고 초록빛과 파란빛 사이의 예쁜 색을 따와 '**파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베타 종의 특징은 수컷은 암컷보다 지느러미가 매우 크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홍희상학우가 말하는 파랑이가 가장 귀여웠던 순간은 어항 앞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면 파랑이도 따라서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파랑이를 보니 귀여운 애완 물고기를 길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마지막을 장식할 반려동물은 바로 16학번 **우승제** 학우가  
기르고 있는 세 마리의 반려묘들입니다!

한 마리만 있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고양이가 세 마리나  
함께 하다니 정말 너무 부러운데요. 우승제 학우께서는 세  
마리 고양이들의 매력이 고스란히 잘 담긴 사진을 보내주셨  
는데 정말 너무나도 귀여운 사진들이니 다들 심쿵할 준비  
해주세요!



회색 털에 큰 눈이 매력적인 이친구의 이름은 '**토토**'라고 합니다. 살짝 내민  
혀가 너무 귀여워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노란 빛깔의 털과 카리스마 있는 눈빛이 느껴지는 이 사진의 주인공은 '린'입니다.



'린'이 너무나도 귀엽게 식빵을 곱고 있는 사진을 두 장이나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만 등을 쓰다듬어 싶어서 만든 매력적인 사진이네요~







흰 털에 어딘가 도도해 보이는 표정이 매력적으로 담긴 이 사진의 주인공은 '미요'입니다.





# 이달의 학부생

글 이석종  
김현경  
장민혁  
디자인 김민영

16학번 우승제





이번 달에는 한재용 교수님 연구실에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물생명공학전공 16학번 우승제 학생이 이달의 학부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부생들에게 익명으로 질문을 받았고 이 질문들을 토대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 롤 모델이 있나요?

롤 모델,, 김연아! 이유도 말해야 하나요? 김연아가 세계 정상에 오른 피겨스케이팅 선수잖아요? 제가 약간 뻘하지만 김연아의 노력상 이야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들어 재능 덕분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김연아는 재능에 노력을 추가한 일화가 많고, 또 재능을 떠나서 노력한 점들이 다른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에 비해 일화가 많아서 롤 모델로 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쁘잖아요!! ㅎㅎ

### 실험복 입었을 때 정말 멋지던데. 멋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두가 실험복 입었을 때 실험자의 기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구나 입어도 실험하는 과학자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저를 좋게 봐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인중에 나 있는 점의 반지름이 몇 센티미터인가요?

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만져보니까,, 0.5cm 정도 아닐까요? 물어보신 분은 갠 톱을 주세요.

### 애플 제품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 저는 지금처럼 애플 제품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안드로이드 제품을 사용했었죠,, 근데 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네이버 키는데 1분 걸리고, 화면전환이 오래 걸리고,, 아이패드 1세대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구세대 제품임에도 최신 안드로이드 폰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애플 제품을 쓰기 시작했죠. 이걸 계기로 애플 제품에 깊이 발을 들여 놓게 되었고, 워치나 에어팟 같은 제품도 함께 사용하면서 연동하는 게 너무 편해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 ‘우승제’의 매력포인트는?

일단 저는 낙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속눈썹이 참 깁니다.. 장점인지 모르겠는데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 스스로가 느끼는 거지만 저는 약간 성격이 좀 착한 것 같아요. 남들을 잘 가르쳐 주고 상냥하게, 화 같은 거 잘 안내고 순둥순둥한 성격이에요.

### 한 달 내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나마 행복했던 건 .. 가장 행복했던 건.. 아 제가 5월부터 연구하던 게 있어요. 그 실험의 베이스가 되는 세포들이 있는데, 유전자 편집이 된 세포들을 키우는 데 성공했어요.. 그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 승제님. 교수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근무하고 싶나요?

많은 분들이 ‘승제는 교수가 꿈이다’ 라고 말해 주시는데, 저는 교수가 꿈이 아니에요. 교수를 목적으로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커리어를 이어가다가 기회가 생기면 교수가 되는 것이지.. 저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biology 분야는 서양 쪽이 지원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연구 환경이 잘 갖춰진 기업, 국가 연구소에서 일하는 것이 꿈입니다.



### 한재용 교수님의 매력포인트는?

말을 잘해야 하는데.. 독자들 중에는 1학년이 있을 텐데, 잘 보면 귀가 부처님 귀 모양이세요.. 복스럽다는 인상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잘 웃으셔서 첫 이미지가 포근하고, 이미지가 좋은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생리학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으면, 생리학을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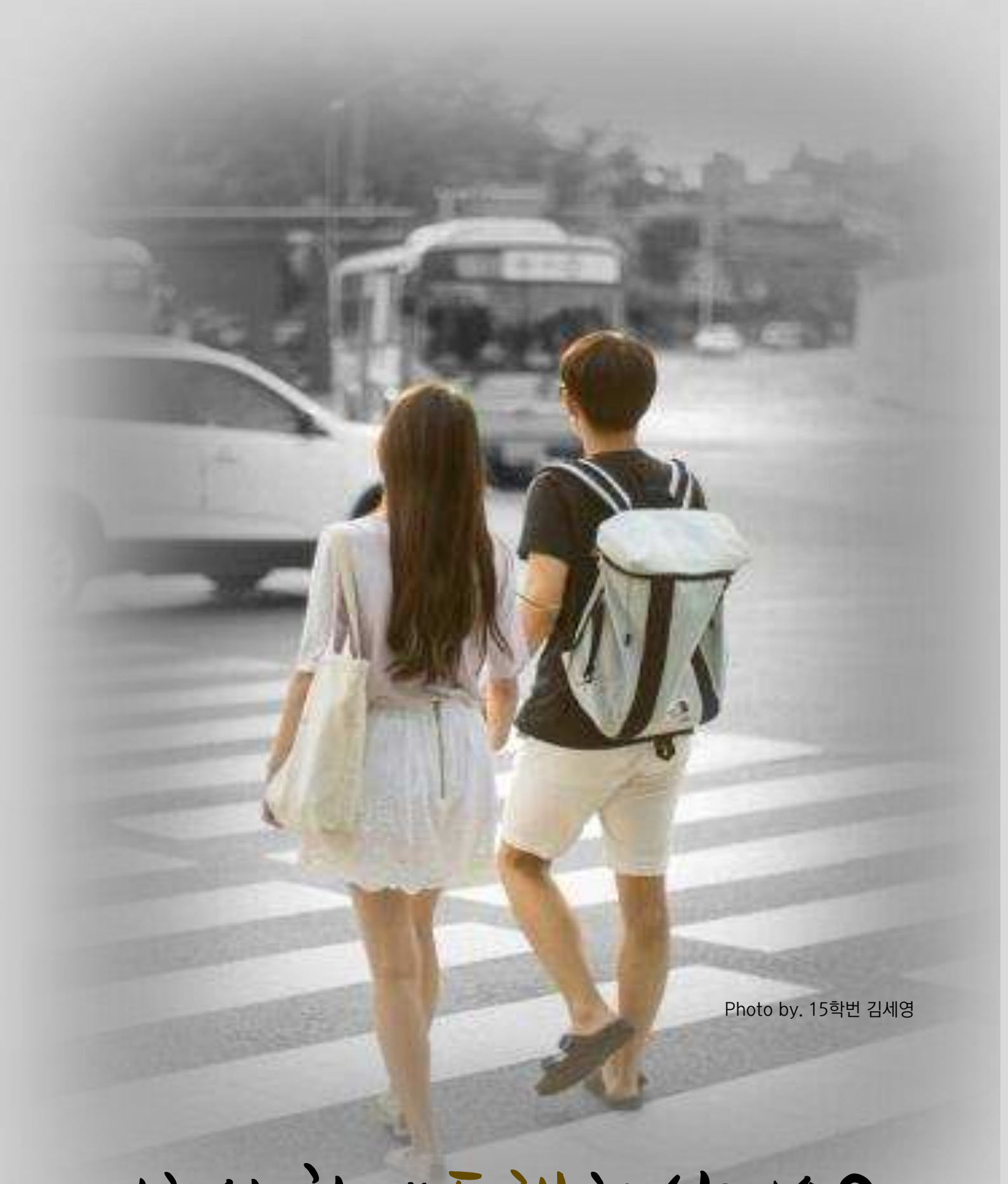


Photo by. 15학번 김세영

저희와 함께 동행하실래요?

구독, 지원문의) [walktogether16@naver.com](mailto:walktogether16@naver.com)



# 소감

## 김민영

동행과 함께한지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이제는 정말로 마무리 지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행을 통해 동자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함께했던 여러 선배, 동기, 후배들 모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좋은 인터뷰와 좋은 사람들로 가득한 동행이 되길 바랍니다!!



## 허수민

처음으로 팀장을 맡아 조원들을 이끌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동심과 친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동행 화이팅!

## 전태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동행에서 디자인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만들기 위해 코너를 짜고 코너에 어떤 것을 할지 고민하고 디자인까지 완성시키는게 시간도 오래걸리고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뿌듯했습니다. 동행 앞으로도 꼭 화이팅해요!!



## 김현경

이번 동행 활동도 실험실 취업 현황이라는 코너의 팀장을 하면서 진로 탐색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선배님, 동기님들께 감사하고 다음 호 국장을 맡게 되었는데 다음 호에도 의미 있는 활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연희

동행을 하면서 선배배들, 그리고 동기들과 여러 재미난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다들 힘써서 글 쓰고 활동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도 동행 화이팅!!



## 이하림

안녕하세요! 동자18 이하림입니다 ㅎㅎ

동행에 들어온지 엇그제같은데 벌써 동행 마감도 하고 한 학기가 훌쩍 지나가버렸네용 ㅠㅠ 그동안 수고 많으셨구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사실 동행 회식을 한번도 못가서 가는게 제 소원이었음 ㅎㅎ 동행 여러분, 동자 여러분 사랑해요~>>>>



## 이석종

동행 팀장이 되어 글을 써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참여할게요!!



## 김태주

우리집 땡냥이' 재미있게 쉬어가는 코너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글을 준비하면서 개성만점의 반려 동물들을 알게 되어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반려동물들을 소개해주신 학우들분과 국장님, 멋진 디자인을 해주신 희상언니께 감사드립니다~☺





## 전민경

이번 호에서는 처음으로 팀장을 맡아보았는데 그만큼 부담감도 있었지만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색다른 시도를 해보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막막하기도 했지만 다 끝나고 나니 뿌듯합니다. 새내기로서 동행 활동이 끝나서 매우 아쉽네요. 그럼 다음 호에서도 동행 화이팅!



## 지상혁

저희가 1학년때 시작한 동행이 어느덧 7호가 나오고 저희도 4학년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모두 즐거운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홍희상

정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디자인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 김동민

동행을 한지 꽤 오래되었고 많은 걸 해봤다고 생각 했는데 이번 호에 국장을 맡으면서 얼마나 이 잡지가 나오는 데에 많은 손이 필요한 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장을 하면서 동행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었고 곧 군대를 가지 전에 과에 활동을 끝마치는 느낌도 들어서 좋았습니다. 국장이 많이 힘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잘 따라와준 동아리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려요!! 다음 동행 화이팅!

# Thanks For your favor

동행은 동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라도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자와 후원 금액은 명단에 1년간 게시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문의번호: 010-3434-5758

## 후원자 Donor

### 동행4호

서울대학교 축산학 동문회

500,000원

### 동행5호

송제언 선배님

150,000원

### 동행6호

최윤재 교수님

익명

300,000원

200,000원



# 동행

Copyright © 2016 동행

동행이 이 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합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e contents of this publication shall not be duplicated, used or disclosed in whole or in part for any purpose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publisher